



제목	경계를 뛰어넘는 신학: 동방정교회와 서방교회 전통의 만남
발행언어	한국어
발행처	대한기독교서회
발행일	2002. 10. 10.
저자	카네기 사무엘 캘리언 이달 · 이문균 옮김
출판도시	서울
페이지수	208
ISBN 또는 ISSN	978-8951105210

**내용 요약**

이 책은 서방 기독교인들이 간과해 왔던 기독교의 동방적 기원과 동방정교회의 풍부한 유산을 기독교 교회 일치에 관점에서 소개하고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라는 편향성을 극복하고 기독교 신앙의 지평을 확대하고자 한다. 저자는 교회일치운동이 성년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서방세계에 동방교회의 전통과 내용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현실을 문제 삼는다. 하여 저자는 교회일치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중심으로 이 책을 전개하고 있다. 저자가 제기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어떤 교회 회의가 에큐메니컬한 것인가? 에큐메니컬 시대에 신앙고백의 가치는 무엇인가? 계시와 역사의 상호관계는 어떤 것인가? 영성신학은 왜 필요한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권위의 근거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현대적 의미는 무엇인가? 기독교는 마르크스주의의 도전에 대해 어떻게 응답하는가? 기독교 종말론의 세속화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등이다.

이 책은 크게 2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 ‘동방정교회와 새롭게 하시는 성령’에서는 동방정교회의 배경과 역사적 변천과정을 고찰하고 있으며, 특히 ‘수용’과 ‘연속성’을 에큐메니컬 공의회 신학적 기준으로 제시한다. 제2부 ‘동방정교회에 대한 도전과 미래’에서는 기독교 그룹들의 일치를 위한 권위의 문제, 정교회의 신학적 주제들, 시대변화에 따른 정교회의 다양한 모습, 세속화의 문제, 과학기술의 도전 등의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